

WCCW'87 참관기

全 遇 稷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망기술연구실 연구원)

WCCW(Winter Computer Communications Workshop)'87은 국내 컴퓨터 통신분야에 관계하는 학계·산업계 인사들의 정기적인 학술모임으로써 86년이래 4 차례 개최되었다. 이번 Workshop은 새로 개교한 포항공과대학에서 국내 관련인사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월12일에서 14일까지 3 일동안 개최되었다. 본 Workshop은 ETRI가 주체가 되어 개최되었으며, 컴퓨터 통신에 관련된 25편의 논문과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Workshop에서 발표된 많은 논문과 주제발표에서의 열띤 토론에서 국내 컴퓨터 통신 분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2월12일 오후부터 시작된 논문발표는 주로 컴퓨터 통신프로토콜의 개발 및 검증기법에 대한 논문들과 프로토콜을 개발한 경험을 소개하는 논문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번 논문발표에서는 ISO/OSI 국제표준 프로토콜에 관한 논문들도 여러편 발표되어, 국제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프로토콜 검증기법에 관한 논문으로는 Petri-net에 관한 분석과 이를 발전시킨 프로토콜 검증 도구 개발, SDL을 이용한 프로토콜 개발 도구, Estelle을 이용한 프로토콜 검증과 Test Sequence생성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개발한 구현논문으로는 ISO/OSI국제표준 프로토콜의 각 계층을 구현하는데 관계한 논문들을 포함하여 MHS와 분산DB 등의 응용계층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되었다. 또한 기존 프로토콜을 근거리 통신망에 응용한 분산 시스템이나 분산처리를 위한 IPC등을 개발

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논문들은 직접·간접으로 ISO/OSI국제표준 프로토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IBM의 SNA나 DOD의 TCP/IP를 구현·시험한 논문들도 있었다. 또한 발표된 논문들중에는 순수 컴퓨터 통신분야는 아니지만, 정보와 음성을 동시에 전달하거나, 통신을 응용한 분산처리기법등과 같이 컴퓨터 통신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분야의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필자는 ISO/OSI 상위계층 즉 Session계층과 ACSE, CCR등에 관한 구현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황과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Workshop에서의 논문발표외에 주제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주제발표는 일정한 주제에 대한 몇편의 주제발표를 들은 후, 발표자와 참석자간의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현재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ISO/OSI 국제표준 프로토콜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과 방법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주제발표에서는 국제표준 프로토콜을 국내의 전산망에 적용하고 이를 발전시켜 국가기간전산망에 사용하기 위한 DACOM의 장기 계획안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의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토론에서 국제표준 프로토콜의 개발과 국가기간전산망에 적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이 주제발표에서 필자는 국제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주제발표는 대덕연구단지의 중거리 통신망(MAN)의 설치 및 운용방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

론이 있었다. 먼저 ETRI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덕연구망의 기본구성방안에 관한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ETRI에서 발표한 기본구성안에 의하면 대덕연구망은 광Cable을 이용한 Token BUS방식으로 제안되었으며 SDN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망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간다는 것이다. 대덕연구단지에는 많은 연구소가 지역적으로 모여있고, 앞으로도 여러 연구기관이 이주할 것이므로 대덕연구망의 구성은 컴퓨터 통신분야뿐 아니라 연구기관 상호간의 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WCCW'87에 참가한 후 필자가 받은 첫번째 인상은 국내의 컴퓨터 통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었다. 국내의 컴퓨터 통신 역사가 매우 짧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높은 관심은 이 분야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장이라 여겨진다. 또한 국내 컴퓨터 통신 관련인사 100여명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는 토론에도 발표자의 논문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열기와 성의는 곧 바로 우리나라의 컴퓨터 통신분야의 발전으로 직결될 것이다.

ISIIS '87 참관기

河 正 炫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디지털시스템개발실 연구원)

제 1 회 정보처리 상호운용 국제 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roperable Information Systems:ISIIS'87)은 Interoperability Technology를 주제로 하여 일본 동경의 Press center hall에서 1987년 2월 25일부터 3일간 열렸다. 이 심포지움은 MITI의 지원을 받아 INTAP(Interoperability Technology Associ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에서 주관하였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원의 전길남교수, 한양대학교의 박용진 교수, DACOM에서 3명이 참가하였다.

INTAP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 프로젝트인 "Interoperable Database Systems"(IDS)를 소개하고, OSI의 미래와 기술적 issue에 관한 정보나 연구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장소로 개최되었다. 심포지움의 내용을 살펴보면 OSI 기술 동향에 관련된 것, 일본 국가 프로젝트인 IDS에 관련된 것, 그리고 OSI 관련단체의 activity 등이다.

심포지움 첫날은 일본인을 위한 OSI 기술 동향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다음 2일간은 심포지움의 주관단체인 INTAP에서 IDS, OSI 관련단체에서 각 단체의 activity를 발표하였다. IDS는 1986년부터 시작하여 7년간 150억엔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것은 AIST의 통제를 받는 대형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interoperability를 갖는 미래의네트워크에 필요에 기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 세부 분야는 distributed database system, multimedia, high reliability, interoperable network system technology이다. 연구 결과로 예상되는 것은 functional standard인 implementation specification이다. 위와같이 일본에서는 1966년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축적하는 것을 보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조만간 유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첨단기술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OSI 관련